

생성주의와 미결정적 동일성*

정 대 휘

【국문요약】 본고는 허구적 창조주의의 난점을 다루기 위해 제시된 생성주의의 설명에 한계가 있음을 다루고자 한다. 창조주의는 ‘설록홈즈’와 같은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저자에 의해 창조되는 추상적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창조주의는 대표적으로 에버렛(Everett 2005, 2013)과 브록(Brock 2010)의 비판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 프리델(Friedell 2016, 2017, 2018)과 크레이(Cray 2017)는 저자의 의도에 호소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창조주의인 생성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생성주의는 에버렛이 제시한 비판을 보다 강력한 형태로 수정하여 제시한다면, 여전히 형이상학적 난점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생성주의는 저자의 의도가 미결정적이거나 다중적인 사례에서 기존의 창조주의와 같은 난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생성주의에 제기되는 수정된 방식의 문제가 에버렛이 촉발한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의 의도에 호소하는 견해 일반이 갖는 난점임을 보일 것이다.

【주요어】 허구적 이름, 동일성 기준, 창조주의, 생성주의, 에버렛, 미결정적 동일성

투고일: 2021. 04. 12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21. 06. 15 게재확정일: 2021. 06. 18

* 본고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 특히 이정규에게 큰 감사를 표한다.

1. 도입

최근 허구적 대상과 관련된 지칭주의의 논의에서 영향력 있는 실재론의 견해는 창조주의이다.¹⁾²⁾ 창조주의는 ‘셜록홈즈’와 같은 허구적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이 존재하며, 이러한 대상들이 수와 같이 영원한 대상이 아니라 저자 등에 의해 창조된다고 보는 실재론의 일종으로, 이에 따르면 추상적인 허구적 대상 셜록홈즈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창조주의는 다음의 문장들이 어째서 직관적으로 참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좋은 설명을 제공한다.

- (1) 셜록홈즈는 코난 도일에 의해 창조되었다.
- (2) 톨킨이 간달프를 만들었다.

(1)은 허구적 인물 셜록홈즈가 코난 도일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이며, (2)는 톨킨이 허구적 대상 간달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참이다. 반면 창조주의는 문학 비평, 그리고 부정존재진술의 의미와 참을 설명하는 것에 의미론적인 난점을 갖는다. 예컨대 다음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 (3) 셜록홈즈는 탐정이다.
- (4) 홈즈는 허구적 캐릭터이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들은 우리의 선-이론적 직관에 따르면 글자 그대로 참인

1) 본고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 특히 이정규에게 큰 감사를 표한다.
 2) 대표적인 창조주의의 견해는 반 인와겐(Van Inwagen 1977), 쉘(Searle 1979), 새먼(Salmon 1998), 토마슨(Thomasson 1999), 브라운(Braun 2005), 볼토리니(Voltolini 2006), 크립키(Kripke 2013)를 참고하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조주의에 따르면 설록홈즈는 실재하는 탐정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탐정으로 묘사되는 추상적 대상이기에 (3)은 글자그대로는 참이 아니고, 추상적 대상 홈즈가 존재하기에 (4)는 글자그대로는 거짓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창조주의가 풀어야 할 의미론적 문제이며 본고의 주제는 아니다. 본고가 목표로 하는 창조주의의 난점은 의미론적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에버렛(Everett 2005, 2013)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에버렛에 따르면 창조주의는 허구적 대상에 대해 허구 세계의 동일성을 반영하는 동일성 기준을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이러한 동일성 기준은 존재론적으로 미결정적인 대상의 존재를 함축한다. 그러나 에반스(Evans 1978)가 적절히 보였듯 미결정적으로 동일한 대상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기에, 창조주의는 거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버렛의 비판에 대해서 기존의 철학자들은 에버렛의 기본적인 생각, 곧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이 허구세계의 내용을 반영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실재론이 존재론적 미결정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 시도해왔지만, 이들의 주장은 창조주의의 반대자들 뿐 아니라 창조주의 내부에서조차도 비판받아왔다.³⁾ 그러나 미결정적 동일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이론으로서 창조주의는 이러한 종류의 비판에 대해 성공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일군의 창조주의자들, 예

3) 대표적으로 슈니더와 솔로드코프(Schnieder and von Solodkoff 2009), 우드워드(Woodward 2017), 토마슨(Thomasson 1999)가 이러한 노선에서 에버렛의 비판을 극복하려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박은 반실재론자로서는 에버렛(Everett 2013), 실재론자로서는 카메론(Cameron 2018), 카플란과 뮐러(Caplan and Muller 2014), 코헨(Cohen 2017)등이 있다. 다만 카메론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컨대 브라운(Braun 2005), 프리델(Friedell 2016, 2017, 2018), 크레이(Cray 2017), 이정규(2020)는 저자의 의도가 허구적 대상의 창조 및 지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에버렛에 답하려 시도한다. 이는 저자의 의도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의도-기반 접근이라 불릴만한 것으로, 본고는 이들 중 일관된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적절히 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 곧 프리델(Friedell 2016)이 제시하고 크레이(Cray 2017)에 의해 보완된 창조주의의 한 갈래인 생성주의를 중심으로 의도-기반 접근을 논하고 비판할 것이다. 생성주의는 브록(Brock 2010)의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고려된 것으로, 생성주의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들의 창조 시점에 관한 문제는 저자의 의도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성주의는 허구적 대상이 생겨나는 조건을 저자의 의도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일견 브록의 문제제기 뿐 아니라 에버렛이 제기한 형이상학적 비판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는 에버렛의 비판들을 조금 수정하여 제시할 때, 생성주의가 여전히 난점을 가짐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들은 생성주의에 따라 저자의 의도를 기반으로 하여 허구적 대상들의 동일성 기준을 제시할지라도, 허구적 대상들의 동일성이 여전히 미결정적인 사례가 남아있으며 더 나아가 생성주의의 동일성 기준이 모순적 대상의 존재에 개입하게 됨을 보임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난점들은 생성주의 뿐 아니라 의도-기반 접근 일반에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에 본고의 1장에서는 우선 브록이 창조주의에 제기한 비판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프리델(Friedell 2016, 2017, 2018)과 크레이(Cray 2017)가 제시한 생성주의가 어떤 이론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브록의 문제제기를 생성주의가 극복하는지를 가장

그렇듯한 방식으로 재구축하여 설명할 것이며, 다음의 2장에서는 에버렛(Everett 2005, 2013)이 제기한 문제제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생성주의가 어떻게 에버렛의 비판을 해소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생성주의가 받아들여야 할 동일성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수정된 방식의 문제제기를 제시하고 어째서 생성주의를 비롯한 의도 기반 접근 일반에 형이상학적 문제가 남는지를 논할 것이다.

2. 프리델-크레이의 생성주의

브록(Brock 2010)은 최근 그의 논문에서 창조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비판을 제시한다. 브록은 만약 허구적 대상이 창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와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창조자의 창조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는 대상이라면, 창조주의자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는지, 곧 어떤 조건 하에서 저자가 허구적 대상을 창조하게 되는지 반드시 답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를 브록을 따라 ‘WHEN’이라고 부르자.

WHEN: 도대체 언제 어느 조건 하에서 허구적 대상이 창조되는가?

브록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창조주의자들이 두 가지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한 부류의 창조주의자들은 이 요구를 무시하고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창조주의자들은 쉘이(Searle 1974, 1979) 제시하는 입장을 받아들여 “사람들을 지칭하거나 이들 에 대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척하기를 통해 저자가 허구적 캐릭터들과 사건들을 창조한다”고 주장한다.(Brock 2010, p. 356) 그리고

브록(Brock 2010, 2018)은 썰과 같은 창조주의가 ‘WHEN’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방식이 다음의 세 가지라고 주장한다.

모든 사용 설명(AUA): 허구적 캐릭터는 저자가 이야기를 쓰거나 말 할 때마다, 곧 허구적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창조된다.

첫 번째 사용 설명(FUA): 허구적 캐릭터는 저자가 처음으로 허구적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창조된다.

척하기를 통한 의도된 창조 견해(ICP): 허구적 캐릭터는 1. 저자가 새로운 허구적 캐릭터를 창조하기로 의도하고, 2. 그 의도에 대한 인과적 결과로서 저자가 그 캐릭터를 지칭하는 척할 때마다 창조된다.

브록이 적절히 지적하듯, AUA와 FUA는 쉽게 반박된다. 만약 AUA가 옳다면 우리는 저자가 한 이야기에서 같은 대상을 지칭하기로 의도하고 이름을 사용하는 척할 때마다 새로운 대상이 창조된다고 말해야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많은 허구적 대상들을 요구할 뿐 아니라, 저자가 이전에 도입한 것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기로 의도하는 경우에도 다른 새로운 창조물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반직관적이다. 또 만약 FUA가 옳다면 우리는 슈퍼맨의 저자가 처음으로 이름 ‘클락 켄트’를 도입한 후 이와 같은 대상을 지칭하기로 의도하고 이름 ‘슈퍼맨’을 도입한 경우에도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창조되었다고 말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귀결이다. 게다가 허구 속 캐릭터들이 항상 이름을 갖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메리 셸리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 프랑켄슈타인에게 ‘프랑켄슈타인’은커녕 어떠한 이름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창조주의자라면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을

허구적 캐릭터로 받아들여야함은 명백해 보인다. 한편으로 ICP는 앞선 견해들보다 그럴 듯해 보인다. ICP는 앞선 두 견해들과는 달리 너무 많은 캐릭터들을 창조하지 않으며, 지칭하는 척하기가 이름 뿐 아니라 지시사와 확정기술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AUA와 FUA의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브룩에 따르면 ICP 또한 다음의 세 가지 치명적인 반례들을 마주한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사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저자 스티븐슨이 우리가 아는 소설과 완전히 다른 초고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초고에서 지킬과 하이드는 서로 다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 마음을 바꿔 스토리를 수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탄생한다. 이때 ICP의 옹호자들은 스티븐슨이 초고에서 서로 다른 두 캐릭터, 곧 지킬과 하이드를 창조했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최종본에서 ‘지킬’과 ‘하이드’는 하나의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티븐슨의 초고와 최종본은 하나의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인 것으로 보이기에, 스티븐슨이 두 개의 캐릭터를 창조했다가 하나를 없앴거나, 둘을 하나로 결합했다거나, 둘에게 서로 동일하다는 불가능한 속성을 귀속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스티븐슨이 두 개의 겉모습(guise)을 갖는 하나의 캐릭터를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이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가능성은 모두 그럴듯하지 않으므로, 창조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스티븐슨이 서로 다른 두 캐릭터를 창조하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캐릭터를 창조했다는 모순적 귀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셜록홈즈와 왓슨 사례: 코난 도일이 쓴 ‘셜록홈즈’ 시리즈에서 사실 홈즈와 왓슨이 동일인물로 기획되었으며, 이 기막힌 반전은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에 밝혀질 예정이었지만, 도일이 이 이야기를 미처 완결 짓기 전에 죽었고, 우리가 아는 ‘셜록홈즈’ 시리즈만이 남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ICP의 옹호자들은 도일이 오직 하나의 캐릭터

를 창조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홈즈’와 ‘왓슨’이 서로 다른 캐릭터를 지칭한다는 직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반직관적이다.

유명론자 롤링 사례: ‘해리포터’의 저자 롤링이 유명론적 취향을 가진 아마추어 철학자라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그녀의 유명론적 취향 탓에 소설을 쓰면서 어떤 추상적 대상을 창조할 의도도 갖지 않았다. 그렇다면 ICP의 옹호자들은 ICP의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롤링이 소설 ‘해리포터’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어떤 허구적 캐릭터도 창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창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설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창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직관적이다.⁴⁾

더 나아가 브록(Brock 2018)은 즈볼렌스키(Zvolenszky 2016)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반례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톨스토이의 착각 사례: ‘안나 카레리나’를 집필하면서, 톨스토이가 주인공인 안나가 조지 엘리엇의 소설 ‘미들마치’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것으로 착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톨스토이는 이름 ‘안나 카레리나’를 이미 존재하는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할 뿐이고,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할 의도는 갖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창조주의자들은 톨스토이가 ICP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조주의자들은 톨스토이가 안나라는 캐릭터를 창조했다고 여길 것이기에 이는 반직관적이다.(Zvolenszky 2016 p. 319)⁵⁾

4) 이 예시들은 브록(Brock 2010, pp. 359-362)이 제시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5) 이는 본래 브록(Brock 2018)이 프리델(Friedell 2016)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창조주의 자체에 대한 반례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박들에 창조주의가 적절히 답할 수 없다면, 창조주의는 브룩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 문제보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남겨두는 셈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생성주의를 비롯한 의도-기반 접근을 택하는 창조주의가 브룩의 문제제기에 답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이들이 이에 대해 적절히 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브룩의 지적들을 해명하는지는 아직까지 총체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이에 본고는 우선 브룩이 제시한 각각의 반례들을 생성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장 그럴듯한 방식으로 재구축하여 제시하고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⁶⁾

이러한 브룩의 문제제기에 대해 생성주의는 우선 인공물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두 종류로 나누기를 제안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공물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만들기를 의도하고 그러한 의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곧 창조를 통해 만들어지는 창조물과, 바로 그러한 것을 만들기를 의도함 없이 만들어지는 것들, 곧 산출을 통해 만들어지는 산출물로 나뉘어진다. 이에 프리델(Friedell 2018)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조는 누군가가 창조할 의도를 가지고서 대상을 생성할 때 발생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책상들은 창조된다. 산출은 누군가가 생성할 의도 없이 생성할 때 발생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발자국들은 산출된다.”(Friedell p. 293) 그러나 산출이 관

6) 필자는 아래의 설명이 생성주의의 핵심직관과 설명을 가장 잘 포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론, 이는 생성주의자가 본고에서 제시된 것과는 다른 방식의 설명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래의 설명은 생성주의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필자는 아래 설명의 기반에 놓인 직관이 의도-기반 접근을 받아들이는 모든 창조주의자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련된 어떠한 의도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떤 원숭이가 펜을 마음대로 휘둘러 우연히 영어로 쓰인 ‘한 여름 밤의 꿈’과 똑같이 생긴 선-유형들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원숭이가 소설 ‘한 여름 밤의 꿈’을 창조했다거나 산출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숭이는 우리가 별 의도 없이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연히 영어 문장과 같은 모양을 한 잉크 자국들을 산출하였지만, 소설 ‘한 여름 밤의 꿈’을 만든 것은 아니다. 우리는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려 의도하지 않은 채 발자국들을 산출할 수는 있지만, 걷기로 의도하지 않고서 그럴 수는 없다. 만약 누군가가 온 몸이 뽕뽕 뉘인 채로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눈 위를 걸어가며 발자국들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를 그의 산출물이 아니라, 그를 조종하는 사람의 산출물로 여길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원숭이의 경우와는 달리,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만들 의도를 갖지 않은 채 목수가 탁자처럼 생긴 것을 만들 때에는, 그가 탁자를 창조하거나 산출한다고 여길 것이다. 따라서 인공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창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출 또한 이와 관련된 모종의 선행적인 의도를 요구한다. 그리고 프리델은 인공물들이 만들어지는 두 방식을 포괄하여 생성이라 부르자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성주의의 구분을 받아들여 브룩의 WHEN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WHEN: 도대체 언제 어느 조건 하에서 허구적 대상이 생성되는가?

결국 생성주의가 답해야 할 질문은 언제 허구적 대상들이 생성되는 지이다. 그리고 생성주의는 창조물로서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ICP를 통해 성공적으로 WHEN'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크레이(Cray 2017)는 산출물인 허구적 대상들의 WHEN'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한다.

척하기를 통한 우연적으로 의도된 창조 견해(HICP): 허구적 캐릭터는 1. 저자가 허구를 만들기로 의도할 때, 그리고 2. 그 의도에 대한 인과적 결과로서 저자가 만약 캐릭터를 창조할 의도를 지녔다면 행했을, 그리고 그로써 캐릭터를 창조했을 행위들을 할 때마다 산출된다.(Cray p. 291)⁷⁾

그렇다면 우리는 생성주의의 WHEN'에 대한 최종적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척하기를 통한 직·간접적으로 의도된 생성 견해(IGP): 저자에 의해 생성된 허구적 대상은, 이들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ICP에 따라 저자가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창조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대한 인과적 결과로서 그 캐릭터를 지칭하는 척할 때마다 창조되고, 이들이 산출되었을 때는 HICP에 따라 저자가 허구를 만들기로 의도하고 그 의도의 인과적 결과로 저자가 만약 캐릭터를 창조할 의도를 지녔다면 행했을, 그리고 그로써 캐릭터를 창조했을 행위들을 할 때마다 산출된다.

이제 IGP가 어떻게 브룩의 비판들을 해결하는 지 살펴보자. 우선 지킬과 하이드 사례를 살펴보자. 이러한 예시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상대적이다. 예컨대 만약 스티븐슨이 초고와 최종본 '지킬박사와 하이드'가 서로 다른 소설이라고 생각하며 저술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초고의 '지킬'과 최종본의

7) 프리델(2017, 2018)또한 이를 받아들인다.

‘지킬’, 그리고 초고의 ‘하이드’와 최종본의 ‘하이드’가 다른 대상을 지칭한다고 여길 것이다. 또한 만약 스티븐슨이 초고와 최종본이 같은 소설이지만, 최종본에 초고의 지킬이나 하이드 중 하나만 등장하고 이 한 캐릭터에 ‘지킬임’, 혹은 ‘하이드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기를 원했다면, 초고에서 창조된 두 캐릭터 중 스티븐슨이 선택한 하나의 캐릭터만이 최종본에 등장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프리델(Friedell 2016)은 만약 스티븐슨이 초고와 최종본을 같은 소설로 생각하고, 초고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를 없애거나 둘을 하나로 합치려는 생각 없이 글을 썼다면, 최종본에 초고에서 창조된 두 캐릭터가 모두 등장하지만, 두 캐릭터에게 **이야기에 따르면 서로 동일함**이라는 속성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브록(Brock 2010)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이해가 대상들에게 모순된 속성을 귀속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이야기에 따르면 p’라는 속성과 ‘속성p’를 혼동하였기에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어떤 동화에 ‘동글세모’라는 이름을 갖는 한 둥근 삼각형이 등장한다고 해서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자들이 ‘둥근 삼각형임’이라는 속성이나 이를 예화하는 대상의 존재에 개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둥근 삼각형인 동글세모가 아니라, 특정한 허구F에 따르면 둥근 삼각형인 동글세모이다. 말하자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자들은 어떤 임의의 모순적 속성에 대해 이 속성의 존재나 이를 예화하는 대상의 존재에 개입함 없이 ‘허구F에 따르면 모순된 속성p’라는 속성과 이를 예화하는 대상의 존재에 개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델은 직접적인 논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프리델(Friedell 2016)에서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

해리포터의 팬픽 사례: 어느 해리포터와 007시리즈의 팬은 두 시리즈를 결합한 팬픽 ‘나를 사랑했던 마법사’를 쓰기로 한다... 이 팬픽에서 해리포터는 성장하여 최고의 스파이 제임스본드가 된다. (Friedell 2016, pp. 131-132)

이때 ‘나를 사랑했던 마법사’에서 해리포터는 제임스본드이기에 팬픽 ‘나를 사랑했던 마법사’에 따르면 해리포터와 제임스본드는 동일하다. 그러나 해리포터와 제임스본드는 모두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들이고, 팬픽의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인 해리포터와 제임스본드에는 각각 ‘나를 사랑했던 마법사에 따르면 제임스본드와 동일함’,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마법사에 따르면 해리포터와 동일함’이라는 속성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의 귀속은 어떠한 모순도 일으키지 않는다. 위의 예시가 보여주듯, 스티븐슨의 초고에서 창조된 서로 다른 두 캐릭터가 최종본에서 ‘지킬박사와 하이드에 따르면 서로 동일함’이라는 속성을 갖는 것은 전혀 모순적이지 않다. 그리고 프리델에 따르면 지킬박사와 하이드 사례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해리포터와 제임스본드가 이 팬픽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캐릭터라는 것을 모른 채 이 둘이 같은 캐릭터라고 착각하는 팬픽의 독자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허구적 대상 해리포터가 ‘허구적 대상 제임스본드와 다름’이라는 속성과 ‘팬픽 나를 사랑한 마법사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 제임스본드와 같음’이라는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대상인 지킬과 하이드는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에서 서로 동일함’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생성주의는 브룩의 첫 번째 비판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인 셉록홈즈와 왓슨 사례를 살펴보자. 생성주의에

따르면 도일은 ‘홈즈’를 통해 허구적 탐정에 대한 지칭하는 척하기를 한 후 ‘왓슨’을 통해 저술할 때 ‘홈즈’가 지칭하는 바로 그 대상을 지칭하기를 의도하였고, 따라서 ‘클락 켄트’와 ‘슈퍼맨’이 하나의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과 같이 ‘홈즈’와 ‘왓슨’은 하나의 캐릭터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는 브룩의 주장과 달리 전혀 반직관적이지 않다. 위의 예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저자의 의도에 대해 무지한 경우 정확히 몇 개의 캐릭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름들이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지는 독자들에게 잘못 알려질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모든 독자들이 소설을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고, 도일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알려진 소설의 모든 내용에서 그러한 기막힌 반전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캐릭터만이 창조되었으며 ‘홈즈’와 ‘왓슨’이 바로 그 하나의 캐릭터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여전히 반직관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은 지칭의 전환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현재 특정한 섬을 의미하지만, 본래는 아프리카 대륙을 지칭하던 용어였다. 이 모델을 이 사례에 적용한다면, 독자들은 처음 홈즈/왓슨이라는 한 대상을 지칭하는 지칭의도를 가진 두 이름을 인과적으로 차용하면서 두 대상을 지칭하려는 잘못된 사용을 하지만, 어느 순간 이들의 지칭의도에 따른 사용은 최초의 지칭 차용 의도를 압도한다. 이 경우 독자들이 명백히 다른 두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을 의도하여 발화한 문장이 참이 되는 것은 이들이 도일이 창조한 허구적 대상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독자들에게 의해 창조된 신화적 허구적 대상, 곧 서로 다른 홈즈와 왓슨을 지칭하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브룩의 두 번째 비판도 물리쳐진

8) 이는 이정규(2020) 또한 유사하게 지적하는 바이다. 허구적 이름의 지칭의 전환에 대한 내용은 크립키(Kripke 2013)와 브라운(Braun 2005)을 참고하라.

다.

다음으로 생성주의자가 유명론자 롤링 사례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자. 유명론자 롤링은 소설 해리포터시리즈를 저술할 의도는 갖지만, 그녀의 유명론적 성향으로 인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허구적 대상들을 창조할 의도는 갖지 않는다. 이는 생성주의의 입장에서 앞선 구분에 따라 캐릭터의 산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캐릭터를 만들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ICP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그녀는 여전히 관련된 허구를 저술할 의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의도를 통해 캐릭터를 창조할 의도를 가진 작가들이 하는 것과 같이 행위한다. 따라서 IGP에 따라 롤링은 허구적 대상들을 창조하지는 않지만 산출하고, 산출된 허구적 대상 해리포터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결국 브룩의 세 번째 비판도 실패한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착각 사례를 살펴보자. 이는 일견 IGP에 반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톨스토이가 IGP에서 요구하는 생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톨스토이는 관련된 허구를 창조할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과적 결과로서 실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프리델은 이것이 신화적 대상을 도입하는 행위와 허구적 대상을 도입하는 행위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실수라고 지적한다. 프리델(Friedell 2017)은 이 사례에서 ‘안나’를 허구적 대상이 아니라 신화적 대상, 곧 잘못된 이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⁹⁾ 이 사례에서 톨스토이는 저자가 만약 캐릭터를 창

9) 신화적 대상은 잘못된 이론, 혹은 믿음을 통해 도입되는 대상이다. 예컨대 ‘르 베리에는 별컨이 수성의 섭동현상을 일으킨다고 믿었다’와 같은 문장들은 르 베리에의 잘못된 믿음에 의해 도입된 신화적 대상인 별컨에 대한 지

조할 의도를 지녔다면 행했을, 그리고 그로써 캐릭터를 창조했을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상을 지칭하는 척하기를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이 사례에서 톨스토이가 신화적 대상을 산출한 것이 자연스러운 설명이라면, 생성주의는 톨스토이가 이 경우 왜 새로운 허구적 대상을 생성한 것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다¹⁰⁾.

이제 생성주의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제시되었다. 생성주의는 허구적 이름들의 의미론적 값인 허구적 대상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수와는 달리 영원하지는 않지만, 저자의 창조행위를 통해 존재하게 되는 추상적 대상들이라는 창조주의의 견해를 받아들이며, ICP와 HICP의 연언인 IGP를 통해 언제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러한 허구적 대상들의 존재를 야기하는 창조행위가 발생하는 지를 설명한다.

3. 에버렛과 미결정적 동일성

에버렛(Everett 2005, 2013)은 그의 최근 논의에서 허구적 대상에 관한 실재론자들의 이론이 미결정적으로 동일한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귀결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에버렛의 이러한 비판은 다음의 동일성 기준에서 시작한다. 이를 에버렛의 동일성 기준(이하EI)이라고 부르자.

EI: 만일 허구 F가 다음과 같은 것이라면, 1. 이 허구에서 a가 존재하고

칭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새먼(Salmon 1998)과 브라운(Braun 2005)을 참조하라.

10) 다만 생성주의가 이러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신화적 대상에 호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b가 존재하며, 2. a와 b가 실재대상이 아니라면:

- (i) 허구적 캐릭터 a가 허구적 캐릭터 b와 동일하다가 참이다 ↔ 허구 F에서 $a = b$ 가 참이다.
- (ii) 허구적 캐릭터 a가 허구적 캐릭터 b와 동일하다가 거짓이다 ↔ 허구 F에서 $a = b$ 가 거짓이다. (Everett 2013, p. 205)

그리고 에버렛(Everett 2005, 2013)은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이 허구세계의 사실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재론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동일성원리인 바 모든 실재론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그리고 에버렛은 이로부터 존재론적 미결정성을 도출할 수 있는 유형의 허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Bah-Tale(BT)

바라라고 불린 남자가 있었다.

바루라고 불린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 바루가 바라와 같은 지는 존재론적으로 미결정적이었다.¹²⁾¹³⁾

(BT)에 따르면 바라와 바루가 서로 동일한지는 존재론적으로 미

11) 이때 허구세계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허구의 내용을 반영해야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이다. 예컨대 코난 도일의 셜록홈즈 시리즈가 묘사하는 허구세계에서 홈즈와 왓슨은 서로 다른 인물이기에 에버렛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기준은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2) 이는 슈니더와 솔로드코프(Schnieder and von Solodkoff 2009, p. 139)가 제안한 예시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13) 이와 관련하여 에버렛(Everett 2005)은 다양한 예시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이러한 구체적 사항들을 언급할 필요는 없기에 생략하겠다.

결정적이다. 그리고 실재론적 견해에 따르면 (BT)에 등장하는 바라와 바루가 존재하고, 바라와 바루는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기에 허구적 대상들이다. 그리고 에버렛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인 조건문이 결정적으로 참인 전건을 가지면서 미결정적 진리값의 후건을 갖거나, 미결정적 진리값의 전건을 가지면서 결정적으로 거짓인 후건을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대우를 통해 결정적으로 참인 전건과 미결정적 진리값의 후건을 갖는 조건문이 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만약 쌍조건문의 한 부분이 미결정적 진리값을 갖는다면, 다른 한 부분은 결정적으로 참이거나 결정적으로 거짓일 수 없다.”(Everett 2013, p. 212)

이를 통해 우리는 미결정성을 의미하는 문장연산자를 (EI)에 추가함으로써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nabla(P)$ 가 P의 진리값이 미결정적임을 의미하는 문장연산자일 때, (EI)의 (i)에 ∇ 를 더한 다음의 문장들, $\nabla(a = b \text{가 참이다}) \leftrightarrow \nabla(\text{허구 } F \text{에서 } a = b \text{가 참이다})$ 와 (ii)에 ∇ 를 더한 다음의 문장들, $\nabla(a = b \text{가 거짓이다}) \leftrightarrow \nabla(\text{허구 } F \text{에서 } a = b \text{가 거짓이다})$ 가 성립한다.¹⁴⁾ 이로부터 에버렛은 바라와 바루가 동일한지가 미결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례에서 ‘허구 BT에서 바라 = 바루가 참이다’의 진리값이 미결정적이고, 위의 주장에 따라 ‘ $\nabla(\text{바라} = \text{바루가 참이다})$ ’가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¹⁵⁾ 그리고 ‘ $\nabla(\text{바라} = \text{바루가 참이다})$ ’는 바라와 바루가 미결정적으로 동일할 때만 참이다. 그러나 에반스(Evans 1978)가 적절

14) 이때 미결정성을 의미하는 문장연산자 $\nabla(P)$ 를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P가 결정적으로 참도 결정적으로 거짓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는 논리학 체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15) 자세한 내용은 에버렛(Everett 2013, p. 212)을 참고하라.

히 보인 것처럼 미결정적으로 동일한 대상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기에 생성주의를 포함한 실재론자들은 에버렛의 문제제기에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¹⁶⁾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에 대한 창조주의자들의 답변은 (EI)를 정당화하는 직관, 곧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이 허구세계의 사실을 반영해야한다는 직관을 유지한 채로 시도되어져 왔다¹⁷⁾. 그러나 본

16) 에반스의 논증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만약 대상 a와 b가 미결정적으로 동일하다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일 때, b는 a와 미결정적으로 동일함이라는 속성을 갖지만, a는 자신과 결정적으로 동일함이라는 속성을 가지며 a와 미결정적으로 동일함이라는 속성은 갖지 않는다. 이에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구별불가능원리에 따라 a와 b는 서로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a와 b가 결정적으로 다른 대상이라면 이들은 서로 미결정적으로 동일할 수 없기에 귀류법을 통해 최초의 가정이 거부된다.

17) 이러한 대표적인 입장은 슈니더와 솔로드코프(Schnieder and von Solodkoff 2009), 그리고 토마슨(Thomasson 1999)이다. 이들은 각각 허구 내에서 대상들의 동일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이들의 동일성을 한 가지 방식으로 일관되게 다루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슈니더와 솔로드코프에 따르면 허구 내에서 a와 b의 동일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들을 서로 다른 대상으로 보는 것이 기본값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카플란과 뮐러(Caplan and Muller 2014), 에버렛(Everett 2013)이 적절히 반박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따르면 슈니더와 솔로드코프, 토마슨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동일성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이지 않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우드워드(Woodward 2017)는 우리의 허구적 대상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고, 따라서 슈니더와 솔로드코프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허구적 캐릭터’라는 개념이 다음의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애매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1). 명시적으로 동일성을 언급한 경우에만 동일한 경우(ACCF가 ‘허구 F에 따르면’을 의미하는 문장연산자일 때)

$$a=b \leftrightarrow \text{ACCF}(a=b)$$

$$a \neq b \leftrightarrow \sim \text{ACCF}(a=b)$$

(2). 명시적으로 비-동일성을 언급한 경우에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고는 창조주의자들이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이 허구세계의 사실을 반영해야한다는 직관을 유지한다면, (EI)와 이로부터 함축되는 에버렛의 문제제기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EI)를 옹호하는 직관을 대체할 수 있는 직관과 이를 통해 생성주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동일성 원리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를 언급하기 전에 에버렛의 반론이 그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모든 종류의 실재론자들에게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예컨대 모든 속성의 가능한 조합이 영원히 존재하며 허구적 대상들도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플라톤주의와 마이농주의는 에버렛이 제기한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를 피해간다¹⁸⁾. 이들은 존재론적 미결정성의 문제를 모두 인식적 미결정성의 문제로 정당하게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자들이 이미 있고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창작활동이 실재하는 개별자들의 존재론적 위상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저자

$$a \neq b \leftrightarrow \text{ACCF}(a \neq b)$$

$$a = b \leftrightarrow \sim \text{ACCF}(a \neq b)$$

그러나 이에 대하여 코헨(Cohen 2017)은 의미론적 미결정성이 명백히 배제된 경우에도 여전히 미결정성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이를 형이상학적인 미결정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우리의 일상언어에 대해 의미론적으로 미결정적인 모든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상적 언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애매성이 없는 언어로 BT를 저술한다할 때에조차도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 마지막 문장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언어 표현과 관련된 모든 애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미결정성은 의미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취급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드워드의 반론도 에버렛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18) 각각의 대표적인 입장은 잘타(Zalta 1983)와 파슨스(Parsons 1980)를 참고하라.

가 명확한 지칭의도와 단칭사고를 갖고 글을 썼음에도 독자들이 바라와 바루의 동일성에 대해 헷갈려한다면, 이는 명백히 인식론적 미결정성의 사례이고, 저자가 명확한 지칭의도와 단칭사고를 갖지 않는다면, 독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적절히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지칭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배게돌이 사례: 내 방에 배게가 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내가 친구에게 배게를 방에서 가져다달라고 했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친구에게 “배게돌이 좀 가져다 줘” 라고 말한다. 친구는 그게 배게의 이름인 줄은 알지만 어떤 배게의 이름인지는 알지 못한다.

이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내가 ‘배게돌이’를 도입할 때 이 이름이 정확히 어떤 배게를 지칭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경우이다. 두 배게는 거의 비슷하고 나는 이 둘을 구분할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 나는 ‘배게돌이’를 한 배게의 이름으로 도입할 때 애매한 의도를 가졌다. 이 경우 친구는 나에게 도대체 내가 ‘배게돌이’를 통해 지칭하는 배게가 정확히 무엇이냐고 따져 물을 뿐 아니라 이름을 적절히 도입하라고 충고할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정확히 한 배게에 대해 ‘배게돌이’를 적절히 도입했지만, 내가 친구에게 두 배게 중 어떤 것이 배게돌이인지 설명을 애매하게 한 경우이다. 이 경우 친구는 내게 ‘배게돌이’를 통해 지칭하는 배게가 둘 중 정확히 무엇인지 잘 설명하라고만 따질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경우는 모두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언어생활처럼 보인다. 그리고 플라톤주의와 마이농주의의 경우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과 유사하다.¹⁹⁾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19) 프리델(2020)또한 유사한 지적을 한다. 다만 프리델은 플라톤주의에 관하여만 언급한다. 그러나 필자는 프리델과 달리 허구적 대상을 영원히 이미 존

하는 창조주의는 허구적 대상들이 영원한 대상이 아니라 저자에 의해 특정 시점에 생성되는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들과 같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 창조주의가 저자의 창작활동과 같은 것들이 존재론적 범주에 새로운 대상을 추가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4. 생성주의와 에버렛의 미결정적 동일성

앞선 장에서 필자는 에버렛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실재론의 특정한 방식에 문제가 되는지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에버렛의 문제제기는 일견 브룩이 제기한 WHEN에 대한 요구와 구분되는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문제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프리델과 크레이는 언급한 바가 없지만, 생성주의는 브룩의 요구에 적절히 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조주의가 성공하기 위해 답해야만 하는 에버렛의 문제제기에도 적절히 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반복한 것과 같이 에버렛의 문제제기를 극복하려는 기존의 시도들은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이 허구세계의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직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조할 만한 점은 생성주의가 이러한 직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위의 직관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논하기에 앞서 임의의 이야기 F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동일성 기준을 제공할 때, 허구세계의 사실과 저자의 의도를 함께 가져갈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기준은 허구세계의 사실과 저자의 의도를 동시에 반영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선 1장의 해리포터의 팬픽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라. 앞선 사례에서 필

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든 견해가 에버렛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는 ‘이야기에 따르면 p’라는 속성이 속성‘p’와 다르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해리포터와 제임스본드는 이미 존재하던 서로 다른 캐릭터이지만, 각각 관련된 이야기 ‘나를 사랑한 마법사에 따르면 해리포터임’과 ‘나를 사랑한 마법사에 따르면 제임스본드임’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이 경우 이 팬픽의 저자는 해리포터와 제임스본드가 이미 존재하는 서로 다른 캐릭터라는 것을 알고 있고, 팬픽을 쓰면서 이들과 완전히 다른 해리/본드를 만들기를 의도하지 않았다. 팬픽의 저자는 일상적으로는 ‘해리포터’와 ‘제임스본드’를 통해 그가 좋아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로 그들, 곧 해리포터와 제임스본드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야기 내에서 이들이 같은 대상으로 묘사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서로 다른 대상이다. 이러한 사례는 허구세계의 사실과 저자의 지칭의도가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우리는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기준을 주기 위해 모든 허구적 대상 일반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야 하기에, 허구적 대상을 위한 동일성 기준을 논함에 있어 서로 긴장이 있는 허구세계의 사실과 저자의 의도는 함께 사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우리가 적절한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기준을 위해 허구세계의 사실과 저자의 의도 중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냐이다. 그리고 에버렛과 같이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기준을 별다른 논증 없이 허구세계의 사실을 반영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의적이다. 그리고 에버렛이 보인 것처럼 허구세계의 사실을 반영하도록 하는 동일성 기준이 창조주의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귀결을 갖는다면, 창조주의자는 이를 근거로 에버렛이 제시한 직관을 거부하고 다른 대안을 받아들일 이유를 갖는 셈이다. 또한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취할 보다 적극적인 이유도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EI)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던 직관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직관에 따르면 임의의 a와 b에 대해 이들이 허구적 대상이면서, 이야기 속에서 동일할 때 실재세계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이러한 (EI)에 동기를 제공한 직관이 왜 잘못되었는지 보여준다. ‘이야기에 따르면 p’와 ‘속성p’가 다르기 때문에 ‘a임’과 ‘어떤 이야기 F에 따르면 a임’ 또한 서로 다른 속성이다. 그리고 해리포터가 ‘팬픽에 따르면 제임스본드와 동일함’이라는 속성을 갖지만 ‘제임스본드임’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 속 동일성 또한 실제세계로 이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를 사랑한 마법사’ 사례는 우리가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기준에서 저자의 의도를 택하는 것이 옳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허구세계의 사실을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의 결정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EI)는 적절한 동일성 기준이 아니다. 이에 대해 에버렛은 아마도 (EI)가 a와 b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허구의 경우에만 성립하며, 이들이 다른 허구에 등장하는 경우에 우리가 다른 종류의 동일성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허구적 대상들이 최초로 등장하는 사례에서도 저자의 의도를 우선시해야 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톨스토이의 착각 사례를 조금 고쳐보자. 이 사례에서 톨스토이가 브론스키를 실제인물이라고 착각하고 마찬가지로 안나의 남편 카레닌이 실제인물이라고 착각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톨스토이가 반전을 기획하여 그의 허구세계에서 두 사람을 같은 대상으로 도입하고 글을 썼다고 해보자. 이때 톨스토이는 이야기 속에서 카레닌과 브론스키를 같은 대상으로 묘사하지만, 그의 잘못된 믿음에 따라 카레닌과 브론스키가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카레닌과 브론스키는 톨스토이의 허구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실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EI)에 따르면 허구세계의 사실에 따라

둘은 같은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톨스토이의 이름 사용과 단칭 사고를 존중하기 위해 둘을 다른 대상으로 간주해야한다. 이 사례에서 톨스토이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새로운 이름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며 독자들은 톨스토이의 지칭의도를 차용하여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름의 도입자의 지칭의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사용하려 할 때, 이름의 도입자가 각각의 이름을 통해 다른 대상을 지칭하려 의도하고 이에 따른 방식으로 단칭 사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사용한다면 이는 지칭차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허구적 이름 ‘카레난’과 ‘브론스키’는 서로 다른 지시체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²⁰⁾

그렇다면 이제 생성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맞게 (EI)와는 다른 그럴 듯한 새로운 동일성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성주의의 입장에서 허구적 대상들은 그들이 생성된 만큼의 개수로 존재한다. 이점에서 브룩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에버렛의 요구와도 연결된다. 브룩의 요구는 언제 어느 조건 하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지이고, 에버렛의 문제제기는 그러한 생성 행위가 몇 번 일어났느냐는 질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주의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은 IGP에 따라 생성된다. 따라서 생성주의는 에버렛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허구적 대상들은 IGP에 따라 저자가 관련된 허구를 만들 의도를 갖고 그에 대한 인과적 결과로서 허구적 대상을 창조하거나 산출하는 행위를 한만큼 존재한다. 따라서 생성주의자는 BT에 도대체 몇 개의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자의 의도와 그에 따르는 인과적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답할 수 있다. 이러한 IGP를 통한 생성주의의 설명과 직관

20) 이 사례는 지칭의 전환이 일어나기 전의 흠즈와 왓슨 사례와 닮아있다.

을 유지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그럴듯한 생성주의식의 동일성 기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허구적 대상 a 와 b 는 새로운 대상을 창조할, 혹은 대상이 등장하는 허구를 만들 의도를 갖고서 그 인과적 결과로 동일한 창조행위에 의해 생성되었을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같은 대상이다.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생성주의 동일성 기준(GIC):

- (i) a 와 b 가 허구적 대상일 때,
- (ii) $a = b \leftrightarrow a$ 와 b 는 같은 의도에 기반을 둔 같은 창조행위에 의해 생성되었다.²¹⁾

그리고 생성주의는 이러한 동일성 기준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설명과 직관의 기반에 놓인 것이기 때문이다.

생성주의자들은 GIC를 통해 위의 (BT)와 같은 사례에 쉽게 답할 수 있다. 여전히 문제는 저자의 의도에 상대적이다. 만약 저자가 같은 대상을 만들 의도를 갖고서 이야기를 저술했다면 이야기에서 묘사된 사실과 무관하게 바루와 바라는 같은 허구적 대상이며, 저자가 서로 다른 대상을 만들 의도를 갖고서 이야기를 저술했다면 바루와 바라는 서로 다른 허구적 대상이다. 그렇다면 생성주의는 브룩과 에버렛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모두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며 (EI)를 대체하는 그럴 듯한 동일성 기준까지 성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1) 이때 창조행위는 산출행위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다.

5. 수정된 형이상학적 문제들

이제 다시 미결정적 동일성으로 돌아오자. 우리는 3장에서 생성주의가 어떻게 허구적 대상의 미결정적 동일성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생성주의자들이 답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생성주의는 허구적 대상의 생성과 동일성 기준에 있어 저자의 의도를 중요한 기반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저자의 의도가 불명확한 경우가 쉽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우선 생성주의자들이 인공물의 생성과 관련하여 저자의 의도가 불명확하고 미결정적인 경우에도 생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의 예시들을 생각해보자. 어떤 목수가 무언가를 만들 의도는 갖지만, 정확히 무엇을 만들지 불명확한 의도를 가진 채로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 우산 꽃이가 될지 아니면 꽃병이 될지 결정하지 못한 채로 작업을 완성한다. 그럼에도 그는 무언가 생성해냈다. 그것이 우산 꽃이인지 꽃병인지, 아니면 이 중 어떤 것도 아닌지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는 차치하고서 이 목수가 불명확한 의도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는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롤링이 해리포터시리즈의 첫 번째 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쓰면서 해리포터라는 살아남은 아이를 저술과정에서 만들어냈다고 해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 롤링이 이야기 플롯의 거의 대부분을 완성했지만, 아직 해리가 이마에 번개모양을 갖는지 꽃모양을 갖는지 결정하지 못했다고도 해보자. 말하자면, 롤링은 그녀가 정확히 어떤 속성을 갖는 허구적 대상을 만드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명백하게 해리포터라는 허구적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물론 이에 대해 누군가는

불명확한 의도를 갖고 인공물을 생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일성에 있어 미결정적인 의도를 갖고서 무언가를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공물의 동일성에 있어 미결정적인 의도를 가지면서도 무언가를 생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브나인(Evnine 2016)이 제시하고 프리델(Friedell 2020)이 수정한 구체적 인공물에 관한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시계의 복원, 창조, 혼돈 사례

복원: 클락씨는 아침에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그의 시계를 분해해 놓았다. 저녁에 그는 부품들을 다시 조립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아침에 보았던 그 시계와 똑같이 닳은 시계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는 기존의 시계를 복원할 의도를 갖고서 그렇게 한다.

창조: 클락씨는 아침에 나가면서 그의 시계를 분해해놓았다. 저녁에 그는 아침의 시계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리고서는, 새로운 시계를 창조할 의도를 갖고서 모든 부품들을 다시 조립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침에 보았던 그 시계와 똑같이 닳은 시계를 보게 된다.

혼돈: 클락씨는 아침에 나가면서 그의 시계를 분해해놓았다. 저녁에 그는 모든 부품을 다시 조립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아침에 보았던 그 시계와 똑같이 닳은 시계를 보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는 이 일을 매우 대충 진행한다. 그리고 그의 의도는 매우 혼란스럽고 불명확해서 그가 자신이 기존의 시계를 복원한 것인지 새로운 시계를 창조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Evnine 2016, p. 5)

그리고 프리델은 이어서 허구적 대상에 대해 유사한 사례를 제공한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Cah-Tale(CT) 사례: 클락씨는 아침에 한 줄로 된 매우 짧은 소설 CT의 1부를 쓴다.

“카라라 불린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서는 저녁에 클락씨는 시퀀격인 CT의 2부를 쓴다.

“카루라 불린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카라가 카루인지, 아니면 둘이 사실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클락씨는 저녁에 몹시 피곤했기에 글을 엄밀하게 쓰지 않았고, 저술과정 속에서 그의 의도는 몹시 혼란스럽고 불분명했다. 이에 카라가 카루와 같은 인물인지에 대해 클락씨는 미결정적인 의도를 가졌다.(Friedell 2020, pp. 6-7)

그리고 프리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우 클락씨는 아침에는 명백히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했다. 그러나 저녁의 경우에는 그가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할 의도를 가졌는지가 미결정적이다...아침에 클락씨는 카루라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저녁에 카루와 카라에 관한 2부격 이야기를 썼다. 그런데 클락씨가 저녁에 캐릭터를 만들기로 의도한 것인지가 미결정적이기 때문에 클락씨가 저녁에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아침에 쓴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다시 가져온 것뿐인지가 미결정적이다. 따라서 허구 밖 실재세계에서 카라가 카루와 동일한지는 미결정적이다. 이러한 미결정성의 원천은 단지 ‘카라’와 ‘카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카루’는 결정적으로 1부에 등장한 캐릭터를 지칭하며, ‘카라’는 결정적으로 2부에 이름이 등장한 캐릭터를 지칭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례는 혼돈 사례와 닮아있다.”(Friedell p. 6)

이러한 예시들은 인공물이 구체적이지 추상적이지와 무관하게 이들의 동일성에 대해 미결정적 의도를 갖고서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리델은 이를 이브나인과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

는 철학자들이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를 우드워드(Woodward 2017)와 같은 방식으로 의미론적 미결정성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지적할 뿐이지만, 이 문제는 또한 생성주의에 치명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보기위해 우선 에버렛이 EI의 (i)과(ii)에 ∇ 를 더한 것과 같이 GIC에도 ∇ 를 더하여 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GIC의 (ii)로부터 $\nabla(a = b) \leftrightarrow \nabla(a와 b는 같은 창조행위에 의해 생성되었다)$ 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위의 CT사례는 ‘ $\nabla(a와 b는 같은 창조행위에 의해 생성되었다)$ ’가 참인 사례 중 하나이다. 위의 사례에서 저자의 의도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카라와 카루는 같은 창조행위에 의해 생성되었다’의 진리값 또한 미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강조할만한 점은 CT사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이름이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명백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아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카라가 저녁에 등장하는 카루와 동일한지의 문제이며, ‘카라’와 ‘카루’가 각각 명백히 아침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저녁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지칭하기에, 이는 의미론적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두 허구적 이름 ‘카라’와 ‘카루’의 경우 이들의 지시체가 동일한 지가 미결정적이라면, 이는 존재론적인 미결정성의 문제이다. 그리고 ‘카라는 존재한다’와 ‘카루는 존재한다’라는 두 문장이 IGP에 따라 모두 참이기에 위 사례에서의 불명확한 저자의 의도는 존재론적인 미결정성의 문제를 낳게 된다. 결국 CT에 몇 개의 캐릭터가 등장하는지는, 곧 카루와 카라가 동일한지는 미결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보다 일상적인 경우에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저자는 그가 상상한 이야기에 존재론적 미결정성과 같은 것을 함축하는 방식으로 저술을 하지만,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를 낳는다는 것을 모른 채 저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저자가 미결정적 동일성에 대한 문제를 갖는 문장을 포함하는, CT보다 더 세부적이고 훨씬 더 풍부하고 일상적인 소설 DT를 썼다고 가정해보자.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소설은 아동용 동화나 인터넷 소설 사이트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저자는 이 경우 똑똑한 철학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이론적 직관을 일관되게 이론화하는 작업에 있어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직관을 일관되고 정합적이게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브라운(Braun 2005)의 지적은 실로 옳다. 이 소설에서 저자는 다루, 다라와 관련하여 난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지칭의도를 가졌고, 저자는 다루와 다라가 서로 다른 대상인지에 대한 엄밀한 고려 없이 소설을 썼다. 그리고 예리한 철학자가 아닌 저자와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를 읽으면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다루와 다라에 대한 발화를 한다. 그런데 생성주의의 입장에서 ‘다라’와 ‘다루’는 모두 저자에 의해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이들에 대한 척하기를 포함하는 발화가 이루어진 바, 생성주의자는 ‘다라가 존재한다’와 ‘다루가 존재한다’를 모두 참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이 사례에서 ‘다루와 다라는 같은 지칭하는 척하기에 의해 생성되었다’의 진리값은 미결정적이고, 생성주의자는 GIC를 통해 $\nabla(\text{다루} = \text{다라})$ 를 받아들여야 하기에, 다루와 다라의 미결정적 동일성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²²⁾

22) 이때 강조할만한 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생성주의자가 허구적 대상 카루가 산출되었다고 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 사례에서 허구적 대상 카루가 산출되었고 이외에 어떤 대상도 창조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곧 카루의 창조와 관련된 저자의 의도가 대상을 창조함에 실패하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창조가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가 미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성주의자들은 우선 위의 사례에서 카루가 창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미결정성을 제거하기 이전까지는 산출된 대상 카루에 호소하여 문제

생성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마지막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는 공저자를 갖는 소설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제 다음의 사례를 상상해보자.

공저자간의 오해 사례: 사라와 타라는 함께 사루와 타루라는 한 번도 함께 등장하지 않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판타지 소설 ‘사루와 타루’를 쓰기로 한다. 둘은 함께 모여 플롯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무대와 사건, 캐릭터들에 대해 서로 간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의 부분들을 맡아 저술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작업을 취합한 후, 함께 퇴고를 진행한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 사루와 타루의 동일성에 대해 서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 사라는 사루와 타루가 동일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타라는 사루와 타루가 서로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저술과정에서 이러한 오해를 알아채지 못한 채로 이야기를 완성하여 출판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사루와 타루’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몇 명인가? 사루와 타루는 서로 동일한 캐릭터인가? 이 경우 사루와 타루는 한 번도 함께 등장하지 않기에 각각의 이름이 무엇을 지칭하는 지는 의미론적으로 미결정적이지 않다. ‘사루’는 타루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의 특정한 부분에 등장한 바로 그 캐릭터를 지칭하고, ‘타루’는 사루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의 특정한 부분에 등장한 바로 그 캐릭터를 지칭한다. 이 경우 두 사람에 의해 다중적인 의도를 가지고 도입된 이름 ‘사루’와 ‘타루’에 대해 이들이 같은 지시체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자의적일 것이다. 우리는 공저자 둘 모두를 원저자로서 존중해야하기에 이 둘의 의도를 모두 존중해야하며, 이와 GIC의 결합은 (사루=타루)&~(사루=타

를 해결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지적에 대한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루)라는 명백히 모순된 귀결에 이른다. 또한 강조할만한 점은 이에 대해 사라가 창조한 사루이면서 타루인 대상과 타라가 창조한 사루와 타루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세 대상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사루/타루가 등장하는 소설 유형과 사루와 타루가 등장하는 서로 다른 두 소설 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단일한 소설 유형만이 만들어졌고, 이 안에 사루와 타루, 사루/타루가 있다면, 소설에 등장하는 ‘사루’와 ‘타루’를 포함하는 문장의 의미론적 값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이 경우, 각 저자와 독자는 ‘사루’와 ‘타루’를 통해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명제를 발화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도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으로 구성된 소설은 그 문장유형이 동일할지라도 동일한 소설유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모든 저자와 독자가 주어진 소설이 많아야 두 명의 주인공을 가진다고 여김에도 세 대상을 도입하는 것도 반직관적이다. 이때 정말로 하나의 단일한 소설 유형과 세 개의 대상이 있다면 서로 완전히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저자와 독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적절히 소통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개의 대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보다 더 많은 수의 소설유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가능한 답변은 사라와 타라가 서로 다른 소설 유형을 창조했고 따라서 사실은 단일한 소설 유형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설 유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우리는 사라와 타라가 서로의 도움을 받아 서로 다른 내용을 갖는 매우 유사하지만 중요한 점에서 다른 두 개의 소설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공저의 사례에서 우리가 공저자들이 단일한 소설을 창조했다고 여기기에 임기응변적(ad hoc)이다. 일반적으로 공저자를 갖는

소설이 저자의 수만큼의 소설 유형을 포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사루와 타루’의 경우에 두 유형의 소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만드는가? 가능한 유일한 답변은 저자가 소설의 내용에 대해 거의 대부분 같은 이해를 갖지만, 중요한 일부 지점에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공저자를 갖는 모든 소설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볼 때 저자들이 서로 간에 소설의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일치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컨대 저자들은 적어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 서로 간에 약간의 다른 심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등장인물의 동일성과 관련해서도 그러하다. 이를 보기 위해 주인공 가라와 가루의 동일성에 대해 열린 결말을 갖는 소설 GT가 공저자를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소설의 저자들은 소설 속에서 그 주인공이 다른 등장인물과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 결정내리지 않고 독자들의 상상에 답변을 맡기기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두 저자 중 한 사람은 사실 가라와 가루가 서로 같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사실 가라와 가루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들은 명백히 가라와 가루의 동일성에 대해 열린 결말을 갖는 하나의 소설을 창조했다. 따라서 ‘사루와 타루’의 경우에 있어 이 소설 사례가 두 개의 유형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임기응변적(ad hoc)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이 비단 생성주의 뿐이 아니라, 창조주의의 의도-기반 접근 일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GIC를 다시 상기해 보자. GIC는 생성주의의 설명에 따라 저자의 의도에 따른 같은 창조행위를 통해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의도-기반 접근을

택하면서도 창조기도 혹은 창조행위,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는 방식과 같은 구체적 내용에 있어 생성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창조주의자들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GIC의 (ii)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GIC를 조금 수정한다면 우리는 의도-기반 접근을 받아들이는 창조주의자들이 모두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동일성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의도-기반 접근 동일성 기준(IIC):

- (i) a와 b가 허구적 대상일 때,
- (ii) $a = b \leftrightarrow$ a와 b는 같은 의도-기반 창조에 의해 생성되었다.²³⁾

이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정확히 어떤 의도가 언제 허구적 대상의 생성에 영향을 끼치는 지는 구체적인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의도-기반 창조에 의한 생성을 각각의 입장이 받아들이는 구체적 설명방식에 따라 이해한다면, IIC는 의도-기반 접근을 택하는 모든 창조주의자가 받아들일법한 동일성 기준으로 보인다.²⁴⁾ 그리고 우리는 EI와 GI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IC의 (ii)에 ∇ 를 더하여 ‘a와 b는 같은 의도-기반 창조에 의해 생성되었다’의 진리값이 미결정적일 때, $\nabla(a = b)$ 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CT사례는 의미론적 미결정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저자의 의도가 미결정적인 경우인 바, IIC를 받아들이는 의도-기반

23) 특정한 의도-기반 접근을 택하는 창조주의자는 생성주의와 달리 창조와 산출을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ii)의 ‘생성’이라는 표현은 창조와 같은 표현으로 이해될 것이다.

24) 의도-기반 접근들은 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가 허구적 대상의 창조에 영향을 끼치는지, 혹은 이 의도에 따라 정확히 언제 허구적 대상이 생겨나게 되는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창조주의자는 같은 의도-기반 창조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a와 b는 같은 의도-기반 창조에 의해 생성되었다’의 진리값이 미결정적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성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도-기반 접근의 창조주의자들 또한 CT사례에서 생성주의와 마찬가지로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생성주의자를 비롯한 창조주의자들은 허구적 대상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의도를 수정함으로써, CT나 DT와 같은 사례에서 어떤 허구적 대상도 생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정규(2020)는 저자의 ‘적절한 창조 의도’를 창조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며 CT, DT, 유명론자 롤링 사례 그리고 이브나인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어떠한 대상도 창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 문학 활동과 이에 대한 직관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창조주의의 동기를 크게 약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DT의 저자가 하는 실수는 우리의 도처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며, 창조주의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대상들 또한 CT와 DT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CT나 DT와 같은 사례에서 어떤 허구적 대상도 생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른 모든 사례에서도 어떤 허구적 대상도 생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허구적 대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라. 대부분의 허구적 대상이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귀결은 명백히 (1), (2)와 같은 문장들의 직관적 참에 대한 창조주의자의 이론적 동기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반복하지만 본고는 많은 경우 저자가 저술과정에서 창조를 포함한 다양한 의도에 있어 명시적 의도를 갖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한

다. 앞선 유명론자 롤링 사례가 일상적이지 않은 사례인 이유는 한편으로는 가정된 상황에서의 롤링의 철학적 취향에 기반을 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저술과정에서 대상의 창조와 관련된 명시적인 의도를 가졌다는 점에 기반을 둔다. 만약 우리가 실재론적 취향을 가진 아마추어 철학자 롤링이 대상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 허구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명시적인 창조의도를 갖고서 저술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앞선 유명론자 롤링 사례만큼이나 일상적이지 않게 들릴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허구의 저자들은 때로는 정확히 무언가를 창조할 명시적인 의도를 갖고서, 또 때로는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을 명시적인 의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난잡한 의도만을 갖고서 저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창조주의견해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서 허구적 대상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창조의도에** 호소하는 창조주의자는 우리의 직관보다 훨씬 적은 수의 허구적 대상들만이 저자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직관이 어째서 잘못된 것인지를 자신들의 동기를 약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해야만 하는 부담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적절한 창조의도가 창조의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주장이 갖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귀결을 하나 더 살펴보자.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저술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다고 해보자. ‘수천의 요정들이 사우론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리고 톨킨이 쓴 위 문장은 허구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의 참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우론과의 전쟁에 등장하는 수천의 요정이 있다.’ 그러나 이때 톨킨은 정확히 몇 명의 대상을 창조할지에 관하여 어떤 의도도 갖지 않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견해는 톨킨이 이 문장을 통해 어떤 허구적 요정도 창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하기에, 이들은 직관적으로 참으로 보이는 ‘사우론과의 전쟁에 등장하는 수천의 요정이 있다’의 참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단순히 특정한 문장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의 동기를 제공해준 (1)과 (2)와 같은 종류의 문장들의 참을 창조주의자들의 동기와 직관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공저자간의 오해 사례 또한 생성주의 뿐 아니라 의도-기반 접근을 택하는 창조주의자 일반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어떤 방식의 같은 의도-기반 창조를 받아들이는지와 무관하게 IIC에 따라 의도-기반 접근을 택하는 창조주의자는 두 저자의 의도를 모두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도-기반 접근을 택하는 창조주의자들 또한 IIC를 대신하면서 위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적 동일성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여전히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문제를 갖는다.

6. 결론

현재 창조주의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 중 가장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견해이다. 그러나 여전히 에버렛의 비판에 대해 성공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창조주의의 표준적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프리델과 크레이에 의해 제시되고 발전된 창조주의의 한 버전인 생성주의가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들 중 기존의 에버렛의 미결정적 동일성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창조주의 견해의 후보임을 보이려 하였다. 이 지점에서 본고의 시

도가 성공적이라면, 필자는 적어도 생성주의가 에버렛의 비판에 대해 성공적으로 답하지 못했던 다른 이론들보다 어떤 방식으로 우위를 갖는지를 적절히 보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본고는 저자의 의도가 혼란스럽고 다중적인 경우 생성주의를 비롯한 의도-기반 접근조차도 허구적 대상의 형이상학적 문제를 회피하지 못함을 보이려 시도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흔하고 우리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본고는 생성주의를 비롯한 의도-기반 접근을 완전히 반박하는 종류의 논증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필자는 의도-기반 접근을 받아들이는 창조주의자들이 성공적으로 이론을 타개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답해야만 할 사례들과 상황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적절한 답변을 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정규 (unpublished) “Authorial Intention, Readers’ Creation, and Reference Shift”
- Braun, D (2005) “Empty names, fictional names, mythical names”, *Noûs* 39 (4):596 - 631.
- Brock, S (2010) “The creationist fiction: The case against creationism about fictional characters”, *Philosophical Review* 119 (3):337-364.
- Brock, S (2018) “A Recalcitrant Problem for Abstract Creationism”,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76 (1):93-98.
- Cameron, Ross P. (2013) “How to be a Nominalist and a Fictional Realist” In Christy Mag Uidhir (eds.), *Art and Abstract Objects*. Oxford University Press. pp. 179.
- Caplan, B. & Muller, C. (2014) “Against a Defense of Fictional Realism”, *Philosophical Quarterly* 64 (255):211-224.
- Cohen, A. (2017) “Fictional realism and metaphysically indeterminate identity”, *Analysis* 77 (3):511-519.
- Cray, D. (2017) “Abstract Generationism: A Response to Friedell”,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75 (3):289-292.
- Evans, G (1978) “Can There Be Vague Object?”, *Analysis* 38 (4):208.
- Everett, A (2005) “Against Fictional Realism”, *Journal of Philosophy* 102 (12):624 - 649.
- Everett, A (2013) *The Nonexistent*. Oxford University Press.
- Evnine, S. (2016) *Making Objects and Events: A Hylomorphic*

- Theory of Artifacts, Actions, and Organis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dell, D (2016) “Abstract Creationism and Authorial Intention”,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74 (2):129-137.
- Friedell, D (2017) “Abstract and Concrete Products: A Response to Cray”,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75 (3):292-296.
- Friedell, D (2018) “A Problem for All of Creation”,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76 (1):98-101.
- Friedell, D (2020) “Fiction and indeterminate identity”, *Analysis* 80 (2):221-229.
- Searle, J. R. (1979) “The Logical Status of Fictional Discourse”, *New Literary History* 6 (2):319–32.
- Thomasson, A. (1999) *Fiction and Metaphys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Van Inwagen, P. (1977) “Creature of Fiction”,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4: 299-308
- Kripke, S (2013) *Reference and Existence: The John Locke Lec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 Salmon, N(1998) "Nonexistence. *Noûs* 32 (3):277-319.
- Schnieder, B & von Solodkoff, T (2009) “In defence of fictional realism”, *Philosophical Quarterly* 59 (234):138-149.
- Voltolini, Alberto (2006) *How Ficta Follow Fiction*, Springer.
- Woodward, R (2017) “Identity in Fictio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94 (3):646-671.
- Yagisawa, T (2001) “Against Creationism in Fiction”, *Noûs* 35 (s15):153-172.

Zalta, E. N. (1983) *Abstract Objects: An Introduction to Axiomatic Metaphysics*, D. Reidel.

Zvolenszky, Z (2016) “Fictional Characters, Mythical Objects, and the Phenomenon of Inadvertent Creation”, *Res Philosophica* 93 (2):1-23.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Philosophy, Sunggyunkwan University

dh960120@naver.com

Generationism and Indeterminate identity

Daehwi Jeong

This paper tries to make a challenge to generationism, a branch of fictional creationism according to which there are referents of fictional names like ‘Sherlock Holmes’ and they are created by authors. Creationism has been developed to deal with challenges especially made by Anthony Everett and Stuart Brock. And recently, David Friedell and Wesley D. Cray suggested generationism developed to deal with the challenges. But, though generationism *prima facie* seems to resolve both challenges, I argue that challenges would be remain unresolved if modified versions of Everett’s challenge are raised. More specifically, generationism cannot give a satisfactory account when authorial intentions are indeterminate or multiple, because generationism would be committed to indeterminate identity in such cases. Finally, these modified challenges raise the same problem to the account in general which appeals to authorial intention.

Key Words: Fictional name, Identity Criteria, Creationism, Generationism, Everett, Indeterminate identity